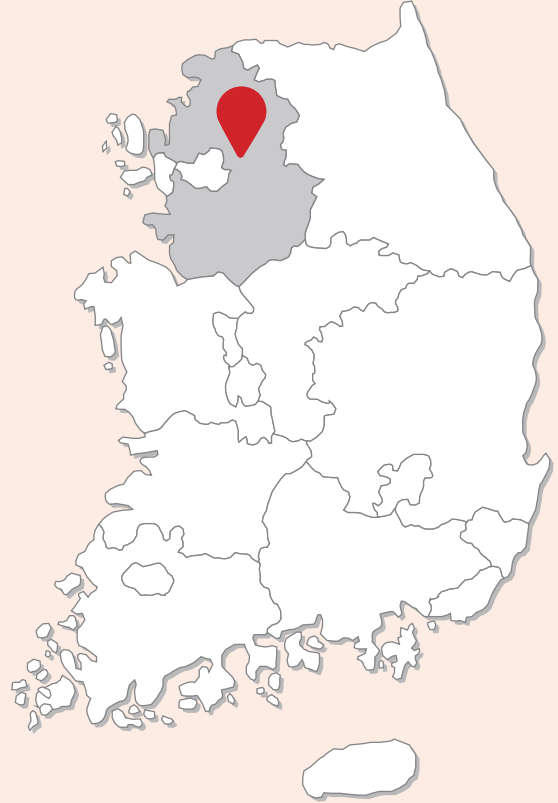


“학생 노력 묻어난 수시 합격생 기사 뭉클해요”

거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구독	기간 1년
자녀	중3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되었나요?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해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대입 트렌드 분석과 선택 과목 가이드, 대학별 수시 분석 등 주제와 시기에 맞게 교육계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룬 기사들이 〈내일교육〉에 많더라고요. 역사가 오래 된 교육전문지라 믿고 구독했는데, 내용이 좋아 만족하고 있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매주 ‘위클리 테마’ 기사는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올해의 입시 변화나 대학의 평가 관점을 알 수 있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유용하더라고요.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기사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부터 교과별 탐구 주제와 동아리 활동까지,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묻어나 뭉클하더라고요. 자문 교사단이 추천하는 학과별 추천 도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교육〉 덕분에 입시 정보

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고, 관심 있는 교육 자료는 스크랩 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다뤘으면 하는 분야가 있나요?

지금 기다리는 기사는 올해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을 분석하는 대학별 시리즈 기사인데요. 대학마다 다른 전형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작년 전형과 비교해 변화된 점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 학과들은 학과명만으로 정확하게 어떤 학과인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학과명이 비슷해도 대학마다 교육과정이나 다르고요. 인기 학과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소위 비인기 학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해요. 이름이 생소한 학과나 신설학과, 첨단·융합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가 많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의대 열풍과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하다지만 주변에 예체능 입시에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도 늘고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넓고 균형 잡힌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

Reporter's A/S

자녀가 운동에 소질을 보이거나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 <내일교육>이 자랑하는 전문가 칼럼도 눈여겨 봐주세요. 예체능 입시에 대해 요목조목 알려주는 김경선 교사의 '이는 만큼 보이는 체대 입시와 김동욱 교사의 '월간 미대 입시 스케치'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실기전형으로 체대나 미대에 합격한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기사도 놓치지 마세요.



본지 1132호 '미술 계열 대입의 특징과 대비 전략'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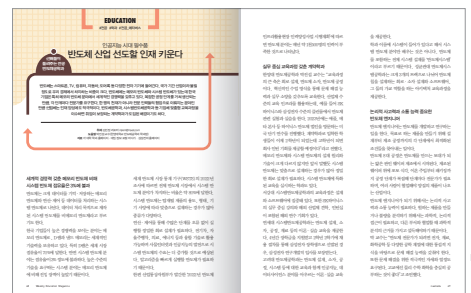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138호

WEEKLY THEME_ 예체능 비실기전형 오해와 진실

"올해 중3인 딸아이가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어린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혼자 미대 입시 정보를 모으더라고요. 마침 '위클리 테마'에 예체능 비실기전형에 대한 기사가 실려 아이와 함께 정독했어요. 흥익대 미대에 다니는 합격생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1138호

선배들이 들려주는 전공_반도체공학과 "인공지능 시대 필수품, 반도체 산업 선도할 인재 키운다"

"학과 소개 기사는 꼼꼼히 읽게 되더라고요. 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도 흥미로웠고,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전문 인력들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분야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